

민간극단의 해결되어야 할 빈곤함의 또 하나, 연습실 - 연습실의 현 상황과 대안

박정희 극단 풍경 대표, 연출

culture | art

대학로에 연극이 넘쳐나고 있지만 실상 연극인들은 아직도 연습실 대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로 열악한 연습실의 여건과 비싼 대관료 때문이다.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 극단에게 연습실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들의 작품세계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공연계에 다양성을 가져오고 문화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연습실 대관 문제 - 빈곤의 악순환

4월은 대학로에서 가장 바빠지기 시작하는 달이다. 3월 중순경부터 공연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5월에 서울연극협회가 개최하는 서울연극제, 공연기획단체, 가넷사가 주최하는 modafe(modern dance festival) 등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정점을 이루고 대학로 극장들은 크거나 작은 공연들로 넘쳐난다. 따라서 4월에 공연단체들은 두 가지 행동 양상을 보이며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연을 하고 있거나 공연 준비를 하면서 대학로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현장 동료들의 화제는 언제나 비슷하다.

“공연 들어갈 건데 어디 아는 연습실 있어요?” “연습실이 없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면서 연습해야지, 뭐.” 공연 준비를 시작하면서 현장인들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무엇보다 ‘연습실 대관’ 인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1997년 연습실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에서 연습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현재, 연습실을 갖고 있는 극단들이 생겨나 연습실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유연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실 대관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진단한다. 즉, 연습실 대관 문제는 2005년이 되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악순환인 것이다. 이에 ‘연극 연습실의 현 상황’에 대한 조사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논리의 근거를 위해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1. 연극은 집단 예술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연극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다. 대본이 구성원들에게 읽히고 공연으로 완성될 때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필요로 한다.
3. 연극은 몸의 예술이다. 이 명제는 철학적인 근거가 아닌, 생물학적인 근거에

서 출발한다. 무대에 서는 배우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질료가 아니다. 작전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산과 들에서 실제적인 훈련을 하며 작전 명령을 '생물학적인 몸'으로 익히듯이 배우도 대본과 공연을 위한 실제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4. 연극은 유기적인 예술이다. 예술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며, 창조성은 정신의 자유로움과 예민함에서 나온다.

'연습실'과 '연습량'은 공연의 완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연 구성원이 모여서 토론할 장소가 없고 배우가 움직일 연습실이 없으면 연출은 연습 진행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간이 제한되어 연습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끝내야 한다면 유기적인(눈에 보이지 않는) 상승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연극 현장에 있는 작업인들이라면 연습실의 중요성을 체감할 것이다. 그런데 왜일까. 왜 아직도 연습실 대관은 공연할 때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그 원인은 연극계의 제작 환경과 결부된 경제적인 논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로에서의 연습실 현 상황 - 연습실의 여건과 대관료

서울연극협회에 등록된 극단의 수는 164여 개이며, 대학로에서 공식적으로 빌릴 수 있는 연습실은 협회에서 대관하는 화수회관(지하)과 서울문화재단에서 대관하는 대학로 연습실, 극단 연습실 몇 개 - 연습실을 갖고 있는 극단이 휴지기일 때 대관 가능한 - 와 연습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여건이 열악한 공간 정도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습실(이하 공연습실)과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연습실(이하 민연습실),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연습실의 여건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공연습실은 민연습실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연극협회에서 운영하는 화수회관 지하 연습실에는 방음, 전면 거울, 음향 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로 연습실은 샤워실까지 겸비하고 있다.

반면에 민연습실의 환경은 방음 정도만 확보되어 있으며 난방, 식수, 오디오 등은 별도로 선택하여 사용한다(사용시 별도로 사용비 추가). 대관료는 카테고리와는 상관없이 대관시간에 따라 구별되고 그 기준이 되는 '한 타

▶한국연극협회 - 화수회관(52평)		
시간	대관료	
9:00 - 13:00	20,000원	
13:00 - 17:30	23,000원	
18:00-22:00	28,000원	
▶서울문화재단 - 대학로 연습실		
〈지하 1층〉		
시간	제1연습실(72평)	제2연습실(52평)
9:00 - 13:00	20,000원	17,000원
13:00 - 17:30	28,000원	23,000원
18:00-22:00	28,000원	23,000원
〈지하 2층〉		
시간	제3연습실(72평)	제4연습실(46평)
9:00 - 13:30	20,000원	15,000원
14:00-18:00	28,000원	20,000원
18:30-22:30	28,000원	20,000원
▶민간극단 1(25평)		
시간	대관료	
10:00-14:00	15,000원	
14:00-18:00	20,000원	
18:00-22:00	25,000원	
▶민간극단 2(30평) 한 타임당: 3만원		
▶민간극단 3(55평)		
시간	대관료	
9:00 - 13:00	시간당 10,000원	
13:00-18:00	시간당 12,000원	
18:00-22:00	시간당 13,000원	

임'은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먼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연습실 대관료를 살펴보기로 한다(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의 연습실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공연습실과 두 개의 민연습실은 크기에 상관없이 대략 24,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민간극단의 연습실(55평)은 한 타임당 40,000원에서 52,000원까지 대관료를 책정하고 있다.

공연 연습은 극단에 따라 기간, 하루 동안의 연습량이 틀릴 것이다. 하지만 현장인들은 오전보다 오후를 연습시간으로 선호하며 한 타임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두 타임을 사용하길 선호할 것이며 최소한 한 달을 연습할 것이다. 연습기간을 한 달로 기준하여 본다면 연습실 대관료는 대략 720,000원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 달 공연하는 소극장 공연 순수 제작비(배우와 스태프의 개런티를 제외한)를 36,000,000원으로 평균잡아 이야기한다면(이는 필자가

‘연습실’과 ‘연습량’은 공연의 완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연 구성원이 모여서 토론할 장소가 없고 배우가 움직일 연습실이 없으면 연출은 연습 진행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간이 제한되어 연습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끝내야 한다면 유기적인 상승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Training Room

극단의 대표로 있는 풍경 극단의 제작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임) 연습실 대관료는 총제작비의 2%를 차지하고 두 달 연습할 경우엔 4%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극장 대관료, 무대 제작비에 비해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다. 왜냐하면 연습실 대관료에는 연습기간의 진행비는 가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극단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공연습실을, 또는 그나마 그것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민연습실(연습이 가능한)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환경 문제인데 재정적인 이유로 연습실로서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공간들-크기가 너무 작아 무대 크기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방음이 되어 있지 않아 집중을 할 수 없거나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이 연습공간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한 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극단들보다 그렇지 않은 극단들이 더 많은 게 연극계 현실이며 당연한 결과로 연습실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제안될 대안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극단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잘 조성된 연습실의 건축을 전제로 한다.

몇 가지 대안들

샘플

2003년 필자와 필자의 극단은 Tiny Alice Festival에 참가한 후 일본 연출가 협회에서 개최한 워크숍을 주도했었다. 워크숍이 개최된 장소는 동경, 신주쿠에 위치한 곳으로, ‘신주쿠무라 스튜디오(Shinjukumura-Studio)’라고

불리우며 4층 건물에 43개의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지역 자체가 거대한 미로 같다는 인상과 함께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쓴 배려-잘 조성된 연습실 환경-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큰 극단이나 연습실을 갖고 있는 극단을 제외한 극단들이 그 연습실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연습실 대관할 때의 조건과 같이 대관료는 시간, 크기에 따라 구별되었다. 대관료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 ‘신주쿠무라 스튜디오’를 언급하는 이유는 ‘극장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벗어난 한 장소에 연습실을 밀집시킨 아이디어에 있다.

대안①

대학로는 서울의 중심지이다. 이 사실은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먼저 장점은 첫째, 교통망의 연결이 잘 되어 있어 대학로의 진입이 용이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본부가 있어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중심지여서 토지세와 연관되어 건물세 등등 극장 대관료, 연습실 대관료 등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내놓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신주쿠무라 스튜디오’처럼 대학로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대학로와 떨어진 지역에 연습실을 밀집시켜 연습실 촌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의 운영이 아닌,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그 촌을 형성해서 운영한다면 일본의 ‘신주쿠무라 스튜디오’ 경우보다는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안 ②

한 지역을 '연습실 촌'으로 형성하는 것이 여건상 용이하지 않다면, 구민회관에 연습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청과 극단의 연계 작업을 시도해 구민회관에 상주할 수 있는 극단들을 영입해 공연과 연습을 가능케 하여 그 지역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한다.

대안 ③

대안 ②와 같은 개념으로, 국가나 기업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공연장과 연습실을 건물 내에 건축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이나 기업의 사업 컨셉트에 따라 공연팀을 유치, 공연장과 연습실을 제공하는 것이다(예: 금호그룹의 금호 아트홀: 금호그룹은 클래식 음악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외국에서 돌아온 연주자들을 위해 아트홀을 제공하고 있다).

대안 ④

대학로에 있는 극장 건물 내에 연습실을 마련, 운영하는 것이다. 극단이 공연을 위해 극장을 대관할 때 연습실도 같이 묶여져서 대관이 가능하게 극장을 운영하는 것이다(예: 예술의전당). 이 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의 소극장 지원정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대학로의 극장이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블랙박스 씨어터를 제외하곤 민간 극단이나, 기획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극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보급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연극은 이 시대의 공룡과 같은 예술이 되어 가고 있다고. 공룡처럼 낮설지만, 어

딘가 매력이 있지만 생존이 어려운. 그리고 작업을 해나갈 수록 작업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중의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마치 썩은 그물망의 매듭들이 물 속에서 올라 오듯이 모든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다는 걸 절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연극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 논리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소극장 공연, 뮤지컬이나 아동극이 아닌, 순수 연극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아 문화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하려면 "연극이 어떤 예술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정책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정책 보급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물과 기름' 같은 정책은 정책인들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중의 하나로 '연습실'을 진단해 보았다. 연극이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예술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숙성되고 발화되는 느린 예술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현장 작업인에게 중요한지를 체감할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연 문화의 다양성 산출'에 근거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 극단에게 연습실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들의 작품세계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공연계에 다양성을 가져오고 이는 문화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해서 현장인으로서 체감하는 '연습실' 문제와 작업인으로서 염원하는 대안을 제안해 보았다. 🙏